

» 양계업발전을 위한 자조금사업 활성화 방안

## 양계산업 위기 탈출에 큰 역할…자조금 예산 확충해야



김수형  
축산신문 기자

**최** 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자조금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경우 내년도 사업예산을 의결하는 회의였으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급조절 사업을 위한 예산 변경이 주 내용이었다. 양 단체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소비촉진 등으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속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 자조금 예산 확충 필요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근 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27억 규모이다. 산란성계 도계시 수당 50원 규모로 거출하고 있는 계란자조금의 거출율을 90%로 계산해 농가 거출금 13억, 정부지원금 10억1천300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조금이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타 축종 자조금과 비교를 해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322억2천900만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97억5천288만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79억5천799만원이다. 계란자조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계란자조금의 경우 온·오프라인 홍보시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 TV에 광고를 내더라도 시청률이 낮

은 시간대에 방송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표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란페스티벌도 예산문제와 AI로 사업 시행이 늦어진 점이 맞물리며 당초 5회 계획이 3회로 축소되기도 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해 거출금액을 수당 5원으로 인상하면서 45억원 규모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무려 30억을 중계감축사업에 투자했으며, 올해도 육계협회 주도로 수급조절 사업에 15억의 예산을 사용키로 했다. 계열사들의 국내 닭고기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으로 인해 생겨난 일인 것이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폭락하자 자조금을 이용해 공급량을 줄이는 옷지 못 할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닭고기 생산량은 질병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량에 비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산을 해야 수입육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고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육계는 출하시기가 한 달 남짓으로 짧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자조금에서는 충분한 수급조절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최근 2년간의 행보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수급조절 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소비촉진이나 농가교육 등의 사업에는 다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

## 2. 자조금, 예산 늘려 자립 준비해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계란소비량은 2010년 236개, 2011년 232개, 2012년 242개, 2013년 242개로 상승세가 멈추고 정체되어 있다. 닭고기 소비량도 2010년

10.7kg, 2011년 11.4kg, 2012년 11.6kg, 2013년 11.5kg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란계와 육계 모두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어 적정생산이 업계의 큰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공급 과잉 현상이 생산량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체되어 있는 현재의 소비량에 맞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량을 서서히 늘려가려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뉴개발과 홍보가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이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조금이다. 85~90% 정도의 거출율을 보이고 있는 계란자조금은 거출금 인상을 고려해 볼 시기이다. 2013년 총회에서 거출금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참석인원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했으며, 올해는 AI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규모인 27억으로는 자조금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거출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닭고기자조금은 거출율이 낮다. 지난해의 경우 승인된 예산의 절반만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올해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계란자조금과는 달리 예산 확대를 위해 거출금 인상보다는 거출율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단체가 합심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자조금에 대한 매칭펀드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매칭펀드의 일몰제에 대비해 자조금은 서서히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양계산업은 AI로 인한 소비침체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 자조금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더욱 활발한 자조금 사업의 추진으로 모든 양계농가가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양계**